

#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4
V. 종합의견 .....	17

## I. 일반개황

면적	442천 km <sup>2</sup>	G D P	1,717억 달러 (2016년)
인구	37.5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4,533달러 (2016년)
정치체제	공화제(내각책임제)	통화단위	Iraqi Dinar (IQD)
대외정책	친미, 친이란 노선	환율(달러당)	1,182 (2016년 평균)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음.
- 전 국민의 90% 이상인 이슬람교도가 시아파(65%)와 수니파(35%)로 나뉘어 종파 간 분쟁과 부족 간 갈등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낮음. 한편,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북부 3개 주(州)를 관할하고 있음.
- 두 차례의 전쟁과 UN 경제제재 등의 여파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발달이 저조하며, 풍부한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과거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일원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제명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IS(이슬람국가)의 침공에 이어 여타 수니파 극단주의 군사조직의 테러 공격이 계속되는 등 종파 갈등에 기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Oil Market Report에 의하면,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2013년 308만 배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42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2분기에는 449만 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11월 OPEC 회원국 및 12월 非회원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이라크의 원유 수출 평균가격(배럴당)도 2016년 35.6달러에서 2017년에는 전년대비 약 27% 상승한 45.3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감산 합의 당시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 상한선은 435.1만 배럴로 정해졌으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역시 상한선을 다소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 ※ 이라크의 원유 수출 평균가격(US\$/배럴)<sup>1)</sup> : 102.9('13) → 96.5('14) → 45.9('15) → 35.6('16<sup>e</sup>) → 45.3('17<sup>f</sup>)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7년 8월 발표한 이라크 정부와의 2017년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경제가 2017년에 -0.4%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는 산유량 증가 등에 힘입어 11.0%의 성장을 기록한 2016년은 물론 4.8%의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서도 크게 악화된 수준임.

1) IMF Country Report - Iraq (August 2017) No.17-251.



-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전쟁 비용 및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한 예산지출 외의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축소·폐지, 세수기반 확대, 공공 부문의 임금 지출 조정 등 보다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과거 공공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동 부문의 임금 지출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단행된 바 있는 정부지출 감축에서도 공공 부문 임금은 감축/동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 원자재·식료품 국제가격 회복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상승 전망

- 석유산업 이외의 산업 부문 발달이 부진하여 대부분의 생필품 및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수입품의 국제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 포인트 낮아진 0.4% 수준에서 안정된 것으로 추정되나, 원자재·식료품의 국제가격 회복 추세로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7년에는 2.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정부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보조금의 축소·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석유 부문의 발전이 미흡

- 석유산업이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 및 IS 등의 테러 공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라크 정부는 정부 재정수입의 원천인 석유 부문에 더욱 주력하여, 비석유 부문은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

- 이라크는 2016년 말 원유 1,530억 배럴(세계 5위, 중동 3위), 천연가스 3.7조 m<sup>3</sup>(세계 12위, 중동 5위)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임.
- 이외에 인산염, 황 등의 광물자원 매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수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 남부 지역과 쿠르드자치정부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산유량 증가

- IS와의 내전 및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부 지역과 KRG(쿠르드자치정부)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원유 증산이 계속되어 왔음.

※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만 배럴)<sup>4)</sup> : 308('13) → 333('14) → 400('15) → 442('16) → 447('17.1분기) → 449('17.2분기)

## 다. 정책성과

### □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 기조 지속

- 이라크 정부는 IMF와 대기성차관 도입을 위한 재정수지 개선 조건에 합의하여 정부지출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2017년 예산안에서도 정부기관에 대한 예산을 내무부, 국방부, 보건부, 교육부에만 할당하고, 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은 배럴당 원유가격 42달러, 일일 원유수출량 375만 배럴을 가정하고 정부 수입을 668.5억 달러<sup>5)</sup>로 책정하여 총액 851.7억 달러로 편성됨. 이는 전년대비 5% 감소한 규모이나, 전체 예산의 21.5%에 달하는 183.2억 달러의 정부 적자를 예상한 편성임.

4) IEA Oil Market Report, August 2017.

5) 석유수출 수입(收入) 574.9억 달러, 비석유 부문으로부터의 수입 93.6억 달러.

- 예산 적자분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국채 발행, 정부지출 축소(정부 관료 수 25% 감축 포함), 일부 해외 공관 폐쇄, 신규 세금 징수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임.

□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

-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7에 따르면, 이라크의 기업경영 여건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60위로 전년보다 하락하여 (189개국 중 156위)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 부문별로는 창업(Starting a business: 164위), 계약분쟁 해결(Resolving insolvency: 169위), 무역통관(Trading across borders: 179위) 및 자금조달(Getting credit: 181위) 부문의 순위가 특히 낮게 나타났음.
-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현재 IS 등 테러 조직과의 전쟁 수행,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각종 장애요인들로 인해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성과 부진

- 이라크 정부와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이라크의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는 종파 및 부족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구조의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있음.
  - IS 격퇴전이 오랜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데는 이라크 정부군의 기강 해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뇌물을 제공하고 병영을 이탈하는 등 군대 내의 부정부패로 인한 전투력 저하가 기강 해이의 근본 중 하나로 지적됨.
- 그러나 정치인 수당 축소, 유령 노동자 임금 축소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이라크 정부의 정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성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 최신회(201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라크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 민간 부문의 육성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

- 이라크는 대부분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부문 중심의 국영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비중이 큰 상황이며(GDP의 약 40%를 점유), 두 차례의 전쟁과 IS의 침공 및 테러 공격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민간 부문의 발전이 취약함.
-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부분 석유·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에 집중되고, 치안 불안과 열악한 사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민간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민간 부문의 육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겠으나, 유가의 소폭 상승과 원유수출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

- 원유 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하던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급감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6.5%로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8.7%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원유수출 가격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고 원유수출량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6.4%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3년 연속 쌍둥이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저유가 지속으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함에 따라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면서도 월평균수입액의 6개월분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이는 투자·소비의 위축으로 상품수입액이 동반 감소한 결과임.
  - 2017년에는 2016년 11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원유수출 가격이 다소 회복되고 원유수출량도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o</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2,581	6,101	-11,633	-14,900	-12,300
경 상 수 지 / G D P	1.1	2.6	-6.5	-8.7	-6.4
외 환 보 유 액	74,296	61,911	50,660	41,606	43,287
총 외 채 잔 액	55,154	59,119	83,933	68,153	73,992*
총 외 채 잔 액 / G D P	23.5	25.2	46.7	39.7	38.4*
D. S. R.	3.3	3.7	4.9	5.5	4.5*

자료: IMF Country Report - Iraq (August 2017) No.17-251, EIU Country Data, OECD CRAM.

\* 2017년 중의 국채 발행(총 76억 달러)을 OECD CRAM 자료에 추가 반영한 수치임.

□ 총외채잔액은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과 국채 발행 등으로 GDP 대비 30%대를 지속할 전망

- 총외채잔액은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2015년 말 전년대비 42.0%나 증가하며 GDP 대비 비중도 46.7%로 급 상승(전년도 25.2%)하였음.
- 2016년에는 차입금 상환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7%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에는 총 76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동 비중이 전년과 유사한 38.4%를 유지할 전망이다.
  - 이라크 정부는 1월 18일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국채(미국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100% 보증)를 금리 2.149%에 발행한 데 이어 8월 2일 5년 만기 국채 발행을 모집하였는데, 당초 모집액인 10억 달러의 6.6배인 66억 달러를 당초 목표금리(7.0%)보다 낮은 6.75%의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음.<sup>6)</sup>
  - 이라크의 국가신용등급이 여전히 투자부적격(junk) 등급 중에서도 중하위권 수준<sup>7)</sup>임에도, 국제적인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6) 이라크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국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국제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여 무산되었음. 이어 금년 1월 18일 1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이자율 2.149%로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100% 보증하는 조건이었음.

7) S&P와 Fitch는 각각 B- 등급, Moody's는 Caal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이라크는 2016년 5월 재정수지 적자 감축을 조건으로 IMF와 향후 3년간 53.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지원 약정을 체결하는 등 당분간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차관에 대외차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는 IMF로부터 2013년 2월 37억 달러, 2015년 7월 12억 달러의 국제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음.
- D.S.R은 외채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2015년 말 4.9%에 이어 2016년 말 5.5%로 일시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말에는 4.5%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사회 안정

##### □ 2018년 총선 전까지 al-Abadi 총리의 집권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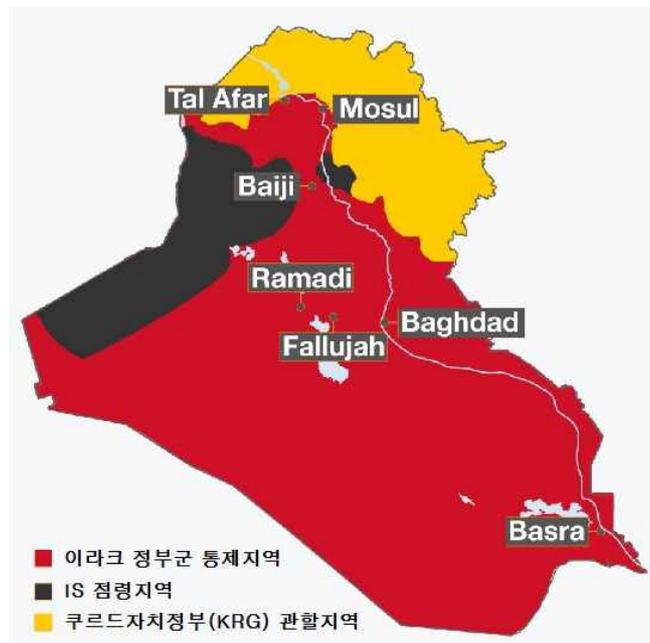
- 시아파인 Haider al-Abadi 총리는 대표적인 친미 지도자로 미국과 공조하여 IS 격퇴전을 수행해온 동시에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종파 및 부족 간의 분열 해소, 산적한 정치·경제적 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능력이 결여된 인물로 평가됨.
  - IS 격퇴전에서의 기여를 대가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쿠르드자치정부를 설득하여 이라크 내에 잔류시키는 것이 현재 최대의 정치적 숙제이나, al-Abadi 총리는 동 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al-Abadi 총리는 그를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이라크의 현 정치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물론 이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어, 2018년 총선 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IS와의 3년 간에 걸친 전투 결과 IS의 이라크 내 점령지역 위축

- 2014년 이라크를 기습 침공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이슬람국가)와 이라크 정부군 및 연합군 간의 전투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IS는 2014년 1월 이라크 북서부 안바르 주(州)의 팔루자를 기습 점령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안바르 주를 점령한 데 이어 6월 초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의 모술을 점령하고, 2015년 5월 중부의 라마디를 점령하여 이라크 영토의 약 3분의 1을 장악하였음.
- 그러나 2015년 12월 쿠르드자치정부 군사조직 페쉬메르가(Peshmerga)가 미군의 지원 하에 모술 서부 신자르 지역을 탈환하고, 이라크 정부군이 미국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라마디를 탈환하였음.
- 이후 이라크 정부군은 2016년 중반부터 모술 탈환을 위한 전투에 돌입하였으나, 군 내부의 종파갈등과 군 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장기전을 펼친 끝에 7월 10일 모술 탈환에 이어 8월 31일 IS의 북부 거점인 탈아파르와 니네베 주(州)를 탈환하였음. 9월 5일 현재 IS의 이라크 내 점령지역은 안바르 주 일부, 중북부의 하위자 등으로 위축됨.

< 그림 1 > 2017년 9월 5일 현재 IS의 이라크 내 점령지역



자료: Al-Jazeera 웹사이트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LiveUAMap에서 재인용).

□ IS 잔당 및 여타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공격으로 정치·사회 불안 지속

- 모술 탈환으로 이라크 정부군이 IS의 모든 점령지를 탈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나, 패퇴한 IS 잔당이 각지에 흩어져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 완전한 안정은 요원한 상황임.

- 아울러 시아파 중심의 현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각종 반인륜 범죄로 인해 수니파 주민들(특히 IS 점령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IS가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인 관계로,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IS 점령지역을 탈환할 때마다 그 곳의 수니파 주민들을 IS 협력자로 간주하여 반인륜적 폭력을 자행하여 종파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음.
- IS를 추종하거나 IS에 동조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도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등 테러 공격을 계속하여 이라크의 정치·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라크 내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주로 수니파)은 단순한 테러 공격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사회의 뿌리 깊은 종파 간, 부족 간 갈등을 세력 확장에 악용하여 이라크의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 쿠르드자치정부의 분리 독립 요구가 새로운 정치불안 요인으로 부상

- 이라크의 최대 소수민족(약 5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으로 오랫동안 독립 투쟁을 벌여온 쿠르드족<sup>8)</sup>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2006년 1월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자치정부(KRG)를 수립하여 아르빌, 다후크, 슬라이마니아 3개 주를 자치지역으로 관할하고 있음.
  - 자치지역 내의 유전 개발 및 원유 수출 관련 권한을 놓고 중앙정부와 자주 갈등을 빚어온 KRG는 최근 IS와의 전투 등의 혼란을 틈타 유전 지대인 키르쿠크 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음.
- KRG는 9월 5일, 관할지역인 3개 주에 키르쿠크 주와 니네베 주의 쿠르드계 주민들까지 포함시켜 쿠르드 민족 국가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9월 25일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협상력을 증대시켜 보다 많은 자치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완전 독립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관측됨.

8) 쿠르드족은 터키 남동부(45%), 이란 북서부(24%), 이라크 북부(18%) 및 시리아 북부(6%)에 걸쳐 분포해 있음. 총 인구는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약 3,000만 명으로 추정되어,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한 전 세계의 민족들 중 최대 규모임.

- IS의 점령지역이 계속 위축됨에 따라 그간 IS 격퇴전에서 자체 군사조직 페슈메르가(Peshmerga)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KRG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 이에 이라크 의회는 9월 12일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al-Abadi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14일에는 투표 참여를 밝힌 Kirkuk 주의 Najmiddin Karim 지사의 해임안을 가결하는 등 주민투표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 이라크 대법원은 9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투표를 연기할 것을 KRG에 명령한다고 밝혔음,
- 역시 쿠르드족이 분포한 인접국들인 터키<sup>9)</sup>와 이란도 KRG의 주민투표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 EU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맹 역시 KRG의 분리 독립 요구는 대테러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투표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음.
- KRG의 분리 독립을 선포할 경우 터키, 이란, 시리아 등 인접국들의 쿠르드계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 거주 중인 국가 내에서 역시 분리 독립을 선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쿠르드족 국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해당국 정부들은 이러한 분리 독립 움직임을 자국 내에서 군사적으로 진압하는 한편, 이라크 정부에게 KRG의 독립 추진을 제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IS 격퇴를 위해 KRG와 협력해온 이라크 정부는 KRG의 독립 선포로 인해 새로운 내전에 휘말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RG에 대한 터키, 이란 등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역내 전쟁 발발의 가능성마저 떠안는 등 역내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KRG가 분리 독립을 강행할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분열이 더욱 심해져 궁극적으로 이라크가 각각 시아파 국가, 수니파 국가 및 쿠르드족 국가로 3분열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9) 특히 자국 내 쿠르드족 독립운동 조직들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탄압 중인 터키 정부는 9월 14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KRG가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였음.

## 2. 국제관계

### □ 파리 테러 이후 IS 격퇴전을 위한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

- 2015년 11월 13일 발생한 IS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11월 2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S 격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反IS 연합전선이 가시화되어 이라크의 IS 격퇴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이라크와 서방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강화됨.
- 다만, 미국은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따라서 미국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도 이라크 정부군의 훈련 및 전술 고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리를 두고 있음.

### □ 시아파 집권 후 계속되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갈등 요인으로 잠재

- 인구의 다수(약 65%)를 차지하면서도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 치하에서 탄압을 받아온 시아파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의 정권을 장악하고,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란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이란은 이라크와 레바논(시아파가 다수), 시리아(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정권 장악), 예멘(시아파가 다수)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여 수니파의 맹주국이자 역내 최대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코자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이라크-이란 간의 밀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은 물론,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의 가장 큰 후원세력이자 이란과 적대관계인 미국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들 국가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
  - 과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훼손된 이라크와 걸프 왕정 국가들 간의 관계는 IS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이라크-이란 간의 밀착관계 발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터키와는 IS 격퇴전을 위해 협력 중이나 긴장관계 지속

-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니파 국가인 터키와의 관계는 긴장되었으나, IS의 침공을 계기로 IS 격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일단 협력하고 있음.
- 터키군은 2015년 말부터 이라크 정부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모술 북동부의 바시카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페쉬메르가와 反IS 민병대 조직의 군사훈련 및 무장을 담당해 오고 있음.
- 터키군은 자국의 쿠르드족 반정부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이라크 영토 내 유입을 소탕한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포격하였고, 2016년 10월 중순 모술 탈환 작전에서는 수니파 주민 보호를 핑계로 개입하여 이라크 정부와 마찰을 빚었음.
  - 이에 금년 초 이라크 의회가 터키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음.
- 현재 터키는 KRG 관할 3개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자국 내 쿠르드족의 봉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개입코자 이라크 내에 계속 자국 군대의 주둔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등으로부터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이라크는 파리클럽의 330억 달러 채무탕감(2004년 11월 합의)을 필두로 러시아 120억 달러(2008년), UAE 70억 달러(2008년), 중국 68억 달러(2010년) 등의 대규모 채무탕감이 성사되었음.
  - 이라크는 현재까지 파리클럽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무탕감을 받은 국가들 중의 하나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대출금 연체 중

- OECD에 의하면 2016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이라크에 대한 여신 60.1억 달러 중 80.3%에 해당하는 48.3억 달러가 연체 상태이며, 이중 47.3억 달러가 '회수불능' 상태로 분류되어 있음. 다만,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17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는 Caa1 등급, Fitch는 B- 등급을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junk)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가장 최근 이라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Moody's는 국가경제가 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점, 만성적인 부정부패로 거버넌스 지표와 투명성 지표가 매우 낮은 점, 극단주의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점을 들어 Caa1을 부여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등급 (2017.1)	7등급 (2016. 1.)
Moody's	Caa1 (2017.8)	-
Fitch	B- (2015.8)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9년 7월 9일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 후 1980. 10. 10 단교)

□ **주요 협정** :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1983), 항공운수협정(1985), 문화협정(1985)

□ **교역규모**

○ 2016년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교역규모는 6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출은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14.4억 달러, 수입은 원유를 중심으로 50.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이라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798	1,428	1,440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 등
수 입	6,687	6,266	5,036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투자실적은 2017년 6월 말(누계기준) 신규법인 수 총 16건, 투자금액 3억 6,84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의 투자실적은 2014년 9,813만 달러(신규법인 1개), 2015년 2,355만 달러(신규법인 2개), 2016년 879만 달러(신규법인 없음)로 감소 추세임. 투자부문별로는 광업이 98.9%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의 공사대금 미수령**

○ 최근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등 이라크 정부가 발주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 정부의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 되자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지연하고 있음.

○ 공사대금 미수령에 더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 증가에 따른 치안불안 가중의 영향으로 해당 프로젝트들의 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V. 종합 의견

- 이라크는 2016년 말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임.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좌우됨.
-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 IS 등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치안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석유 부문에 더욱 집중됨에 따라 비석유 부문은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임.
- 감산 당시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국제유가 상승폭, IS와의 내전, 여타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 증가로 투자와 소비가 동반 위축되어, 2017년에는 -0.4%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긴축 재정정책의 추진과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IS와의 전쟁에 따른 전비 및 복구비용 지출, 국제유가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2015~17년의 3년 연속 쌍둥이 적자가 전망되며, 총외채잔액은 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과 국채 발행 등으로 GDP 대비 30%대를 지속할 전망이다.
- 2017년 8월 IS의 이라크 내 핵심 거점인 모술을 정부군이 탈환하는 등 IS의 점령지역이 위축되고 있으나, IS 잔당은 물론 IS를 추종하는 여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이 이라크 내 종파·부족 간 갈등관계를 악용하여 테러 공격을 지속하여 사회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가 독립 선포를 강행하고 인접국들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동조할 경우, 새로운 내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들이 개입하는 역내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상존하여 새로운 불안요소로 대두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oki1122@koreaexim.go.kr